* 학습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 단순 오타를 제외하고,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음영 표시를 했습니다. 음영 표시만 확인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table>
<tr><th colspan="3">For 2025 P.I.R.A.M 국어 8개년 기출문제집 독서편 정오표 (문제편)</th></tr>
<tr><th>위치</th><th>수정 전</th><th>수정 후</th></tr>
<tr><td>12페이지 마지막 문단
(2쇄부터 반영)</td><td>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위 방법</td><td>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위 방법대로 정직하게 공부하고 계신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가장 확실한 공부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For 2025 P.I.R.A.M 국어 8개년 기출문제집 독서편 정오표 (해설편)</th></tr>
<tr><th>위치</th><th>수정 전</th><th>수정 후</th></tr>
<tr><td>Part 1 76페이지 하이라이트 문장
(2쇄부터 반영)</td><td>③복잡한 문제를~</td><td>①복잡한 문제를~</td></tr>
<tr><td>Part 1 85페이지 44번 문제 1번 선지 ‘해설’ 2문단 네 번째 줄
(2쇄부터 반영)</td><td>내용이 선지에 없는~</td><td>내용이 지문에 없는~</td></tr>
<tr><td>Part 1 217페이지 109번 문제 1번 선지 ‘해설’ 3문단
(2쇄부터 반영)</td><td>반면 ‘레트로바이러스’는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것도 아닌 데다가, DNA가 아닌 ‘RNA’에 자신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은 ㉡과 달리’라는 말도 맞다고 할 수 있겠네요.</td><td>반면 ‘레트로바이러스’는 특정 숙주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존재하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특정’ 세포에만 존재할 뿐 ‘모든’ 세포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은 ㉡과 달리’라는 말도 맞다고 할 수 있겠네요.</td></tr>
<tr><td>Part 1 280페이지 4문단 (1) ① 문장 해설 2문단
(2쇄부터 반영)</td><td>여기서 ‘화제’ 중심으로 정보를 모아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원생미토콘드리아’가 ‘과거의 나’로, ‘미토콘드리아’가 ‘현재의 나’로 재진술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두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인데, 사실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것이니까요.</td><td>여기서 ‘화제’ 중심으로 정보를 모아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원생미토콘드리아’가 ‘나’로,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나의 후손’으로 재진술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각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인데 ‘하나의 개체’에 가깝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요.</td></tr>
<tr><td>Part 1 295페이지 150번 문제 해설 선지 순서
(2쇄부터 반영)</td><td>① <u>장3도로 기쁨을, 단3도로 슬픔을 나타내는 정서적인 음악을 만든다</u>.
[해설 표]

② 플루트의 청아한 가락으로 상쾌한 아침의 정경을 연상시키는 음악을 만든다.
③ 낮은 음고의 음들을 여러 번 사용하여 내면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음악을 만든다.
④ 첫째 음과 둘째 음의 간격이 완전5도가 되는 음들을 조직적으로 연결하여 주제가 명확한 음악을 만든다.
⑤ 오페라의 남자 주인공이 화들짝 놀라는 장면에 들어갈 매우 강한 시끄러운음이 울리는 음악을 만든다.
[해설 표]</td><td>④ <u>첫째 음과 둘째 음의 간격이 완전5도가 되는 음들을 조직적으로 연결하여 주제가 명확한 음악을 만든다</u>.
[해설 표]

① 장3도로 기쁨을, 단3도로 슬픔을 나타내는 정서적인 음악을 만든다.
② 플루트의 청아한 가락으로 상쾌한 아침의 정경을 연상시키는 음악을 만든다.
③ 낮은 음고의 음들을 여러 번 사용하여 내면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음악을 만든다.
⑤ 오페라의 남자 주인공이 화들짝 놀라는 장면에 들어갈 매우 강한 시끄러운음이 울리는 음악을 만든다.
[해설 표]</td></tr>
<tr><td>Part 2 60페이지 26번 문제 1번 선지 해설
(2쇄부터 반영)</td><td><table><tr><th>명시적 근거</th><th>5문단 3번 문장</th></tr><tr><td>실전에서의 판단 과정</td><td>이건 적합도 높이는 건데?</td></tr><tr><td>해설</td><td>검색어들이 웹 페이지에 많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단어의 빈도’를 높여 ‘적합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걸로는 ‘중요도’를 높일 수 없죠.</td></tr></table></td><td><table><tr><th>명시적 근거</th><th>5문단 3번 문장</th></tr><tr><td>실전에서의 판단 과정</td><td>이건 중요도랑 아무 상관 없는데?</td></tr><tr><td>해설</td><td>‘중요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웹페이지들이 더 많이 링크를 하게끔 해야 합니다. 단순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을 나열하기만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링크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중요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Part 2 129페이지 64번 문제 3번 선지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2쇄부터 반영)</td><td>합성은 마지막은 하는 것이지.</td><td>합성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지.</td></tr>
<tr><td>Part 2 159페이지 80번 문제 4번 선지 ‘해설’ 1문단
(2쇄부터 반영)</td><td>일단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은 좋은데,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 것은 (나)의 글쓴이를 완전 무시하는 선지죠? (나)의 글쓴이는 ‘지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비록 ‘외부 세계’, 즉 ‘대상’이라는 것이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했을 뿐, ‘내 몸의 체험’인 ‘지각’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어요.</td><td>일단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은 좋은데,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 것은 ㉠의 주장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을 주장한 ‘로랜즈’는 ‘지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비록 (나)의 글쓴이의 주장과 달리 ‘주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지만요.</td></tr>
<tr><td>Part 2 243페이지 2문단 ①~③ 문장 해설 2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2쇄부터 반영)</td><td>그리고 이러한 ‘생성량’은 ‘소모량(=발산량)’과 같기 때문에,</td><td>그리고 이러한 ‘생성량’은 ‘발산량’과 같기 때문에,</td></tr>
<tr><td>Part 2 255페이지 130번 문제 2번 선지 해설
(2쇄부터 반영)</td><td><table><tr><th>명시적 근거</th><th>3문단 3번~4번 문장</th></tr><tr><td>실전에서의 판단 과정</td><td>가능하긴 했지.</td></tr><tr><td>해설</td><td>기본적으로 ‘선거 방송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을 만족한 정당의 추천이 필요하지만, 이런 초청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후보자들을 위한 별도로 토론회 역시 개최가 가능하기는 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불공정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이죠?</td></tr></table></td><td><table><tr><th>명시적 근거</th><th>3문단 3번 문장</th></tr><tr><td>실전에서의 판단 과정</td><td>가능하긴 했지.</td></tr><tr><td>해설</td><td>‘선거 방송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다시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입니다. 관련 내용이 등장하는 3문단으로 돌아가면,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가 넘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당의 추천 없이도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초청 대상’이 되는 후보자는 어느 정도 당선의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문단에 제시된 여러 조건들을 납득하며 읽었다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었겠네요.</td></tr></table></td></tr>
<tr><td>Part 2 266페이지 135번 문제 5번 선지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2쇄부터 반영)</td><td>법률의 근거 없이 위임명령을 제정하면 삼권 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이지.</td><td>행정규칙은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 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위임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더 넓겠지.</td></tr>
<tr><td>Part 2 291페이지 1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2쇄부터 반영)</td><td>머릿속엔 ‘수입제반 비용=이윤’이라는~</td><td>머릿속엔 ‘수입-제반 비용=이윤’이라는~</td></tr>
<tr><td>Part 2 316페이지 162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1문단
(2쇄부터 반영)</td><td>‘사회적 유대의 약화’와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는 다른 카테고리의 정보였죠. 물론 모두 ‘인구 증가’에서 비롯되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각각 ‘결사 조직의 성행’과 ‘경쟁의 심화’라는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회적 유대의 약화’는 ‘민간 영역’의 문제점이고,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는 ‘관료 영역’의 문제점이니까요.</td><td>‘사회적 유대의 약화’와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는 다른 카테고리의 정보였죠. 물론 모두 ‘인구 증가’에서 비롯되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사회적 유대의 약화’는 ‘민간 영역’의 문제점이고,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는 ‘관료 영역’의 문제점으로 그 양상이 달랐습니다. 따라서 둘을 연결시킬 수는 없겠죠.</td></tr>
</table>

For 2025 P.I.R.A.M 국어 8개년 기출문제집 문학편 정오표 (문제편)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228페이지 지문 [A] 범위 (2쇄부터 반영)	놉흘시고 망고대 외로올샤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사로려 천만겁(千萬劫) 디나도록 구필 줄 모르느냐	날거든 뛰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잣는 듯 백옥(白玉)을 믓것는 듯 동명(東溟)*을 박차는 듯 북극(北極)을 괴왓는 듯

For 2025 P.I.R.A.M 국어 8개년 기출문제집 문학편 정오표 (해설편)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Part 1 135페이지 73번 문제 4번 선지 '선지 유형' (2쇄부터 반영)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Part 1 174페이지 (가) 지문 '실전적 지문 독해' 세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그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Part 1 329페이지 181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2문단~3문단 (2쇄부터 반영)	하지만, 선지에서 묻는 것은 '〈제3수〉의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구체화'되었는지입니다. 〈제3수〉의 정서적 반응은 '뫼'와 관련된 것이에요. 또한 〈제6수〉에서 제시된 '감각적 표현'은 '강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됴하ᄒᆞ노라'가 '강산'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죠? '좋아함'을 구체화하면 '강산'이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이번에도 선지에서 묻는 것을 집요하게 물어보는 선지였네요. 물론, '강산' 자체는 실제 강과 산이라기보다는 '자연' 자체를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감각적 표현' 자체로 볼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해결한다면 이 풀이가 더 적절할 거예요. 하지만 '선지에서 묻는 것'을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주세요. 올해 수능에서도 요긴하게 사용할 내용 중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선지에서 묻는 것은 '<제3수>의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구체화'되었는지입니다. <제3수>의 정서적 반응은 '뫼'와 관련된 것이에요. '뫼'를 바라보니 정말 즐겁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6수>에서 화자가 보이는 정서적 반응은 '님군'에 대한 감사이지, '강산'이라는 감각적 표현에 대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제6수>에 강산이 좋다는 반응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는 그저 '님군 은혜'에 대한 예찬을 위한 빌드업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제3수>의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강산'과 같은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되었다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6수>에서 화자가 '강산'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정서적 반응은 '감사함'이라는, '즐거움'의 구체적 표현이 아닌 아예 다른 방향의 정서적 반응이니까요. 물론, '강산' 자체는 실제 강과 산이라기보다는 '자연' 자체를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감각적 표현' 자체로 볼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제3수>와 <제6수> 속 화자의 내면세계, 즉 정서적 반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죠? 늘 같은 것만 묻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Part 2 88페이지 242번 문제 3번 선지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2쇄부터 반영)	상처가 노래에 덧나는 건 이야기 속에~	상처가 노래에 덧나는 건 말 속에~
Part 2 321페이지 371번 문제 2번 선지 지문 출처 (2쇄부터 반영)	㉠ "애최에 늬가 말 실수헌 게 잘못이지, 남을 탄해 뭘 허니? 이게 모두 모양만 숭업구……, 온, 글쎄, 그만 허구 들어가아. 늬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 "아, 그 배지 못헌 행랑것허구, 쌈이 무슨 쌈이냐?" "똥이 무서워 피허니? 더러우니까 피허는 게지!"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Part 2 321페이지 371번 문제 2번 선지 '해설' (2쇄부터 반영)	㉡은 '분명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서술자 자신의 시선으로 서술하는 가운데, '갑순이 할머니'의 내면세계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갑순이 할머니'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하는 것이 겹쳐 나타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잘못 인지한' 상황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죠? '갑순이 할머니'는 '정이'가 '갑득이 어미'와 싸웠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시선으로 초점화' 같은 어려운 개념을 사용하는 척하면서 결국 인물의 심리에 공감	근처 맥락을 고려하면, ㉡은 서술자 시선의 서술과 '갑득이 어미'라는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서술이 겹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은 서술자가 설명하는 '갑득이 어미'의 깨달음, 즉 내면세계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이는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죠? '을득이'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집주름 영감'과 늙은 마누라인 '갑순이 할머니'는 ㉡에 나타난 '갑득이 어미'의 깨달음과 일맥상통하는 대화를 했으니까요. 정확히는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로 상대에게 대응했다가, 상황을 잘못 인지했음을 깨닫고 새롭게 추측을 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 ㉡이라고

	했는지를 묻고 있네요. 물론, 〈보기〉에 따르면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 서술자는 인물에게 거리를 둔다고 했으니 '인물에게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은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술자는 차별적인 언행을 하는 '갑순이 할머니'와 거리를 두면서 이건 '갑순이 할머니'의 생각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해야겠습니다. '시선으로 초점화'와 같은 어려운 개념을 사용하는 척하면서 결국 여러 인물들의 심리에 공감했는지를 묻고 있네요. 물론, <보기>에 따르면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 서술자는 인물에게 거리를 둔다고 했으니 '인물에게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Part 2 331페이지 375번 문제 5번 선지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2쇄부터 반영)	음료수가 떨어져서 곤란한 게 아니었지.	인과 관계는 핵심이 아니지.
Part 2 341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나아가, < > 표시한 부분에서는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고 있죠?	나아가, < > 표시한 부분에서는 독자를 언급하며 서술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있죠?